

코스피	코스닥
3245.44 (-9.03)	805.24 (+1.57)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2.460 (+0.006)	1392.15 (+9.05)

韓美 상호관세 15% 타결... 쌀·소고기 추가개방 없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한 31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삼성 로고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 영업이익 ‘반토막’ 하반기 반등 기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 2023년 4분기 이후 가장 저조했다. 재고 관련 비용 증가와 함께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한 대중국 수출 제한이 실적에 부담을 줬다는 분석이다. 다만 하반기에는 반도체 업황 회복과 모바일·디스플레이 사업 성수기 진입에 맞춰 인공지능(AI) 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실적 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올 2분기 매출이 74조 6000억원, 영업이익은 4조 7000억원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0.67%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55.23% 감소했다.

반도체부문(DS)은 서버용 고부가 메모리 제품과 파운드리 주요 거래선에 대한 판매 확대로 전분기 대비 매출이 11%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대중 제재 영향에 따른 재고 충당 발생으로 전분기 대비 8000억원 감소했다. 디바이스부문(DX)은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 효과 감소와 TV 시장의 경쟁 심화로 전분기 대비 매출이 16%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1조 4000억원 감소했다.

사업부문별로 살펴보면 DS부문 매출은 27조 9000억원, 영업이익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메모리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3E와 고용량 DDR5 제품 판매 비중 확대를 통해 서버 수요에 적극 대응했으며, 데이터센터용 SSD 판매도 증가했다. DX 부문 매출은 43조 6000억원, 영업이익 3조 3000억원을 기록했다. 모바일부문(MX)은 신모델이 출시된 1분기 대비 판매량은 감소했으나,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견조한 판매가 지속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성장했다.

〈2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

韓 자동차 15% 관세 부과 합의
조선업 등 3500억달러 투자 협정
농축산물 시장 보호 지속 가능
반도체·의약품 최혜국 대우 예상
2주 내 백악관서 ‘한미정상회담’

우리나라가 31일 미국과 관세협상을 이뤄냈다. 앞서 미국은 8월 1일부터 한국에 관세 25%를 물리겠다고 했지만, 이번 합의로 대미 수출품들의 관세는 15%로 낮아졌다. 다만 자동차 부문은 기존 0%에서 15%의 관세가 새로 생겼다. 그러나 가장 큰 우려가 제기됐던 이었던 쌀·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관련기사 3·4·6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추후 부가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양국 조선협력 프로젝트를 위해 1500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선박 건조·MRO·조선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한국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다. 또 2000억달러 규모의 투자는 반도체·원자력발전·이차전지·바이오 등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이뤄진다.

김용범 실장은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일본과 우리의 투자 펀드 규모를 경제 규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31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이 한국에 적용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무역합의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뉴시스

모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며 “미국 통계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의 2024년 기준 무역 적자는 규모가 유사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총 3500억달러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 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한다면 우리의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으로 국내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이뤄지지 않는다. 김 실장은 “미국과의 협의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를 25%에서 12.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나섰지만, 이를 관철하는 데는 실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한선을 15%로 잡아서다. 이에 한국산 자동차에는 15%의 관세가 새로 붙는다. 그간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았지만, 일본과 유럽 연합(EU)은 2.5% 자동차 관세를 부담해왔다. 그래서 우리측은 “일본·EU 자동차 관세는 기존 2.5%를 포함한 것이니, 한국은 12.5%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측이 15%에서 물러나지 않았다고 한다.

김용범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

신의 SNS에 ‘한국의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합의된 바가 없다”며 “대한민국 농업 분야는 99.7%가 개방돼 있다. 0.3%, 10개 내외 종목만 유보돼 있고, 미국 소고기도 제1수입국이다. 이런 부분을 통상이나 다른 부처들이 상당히 많이 공감해줬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 무역협상 타결로 한미 정상회담도 조만간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협상 타결 소식과 함께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일정은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美 연준, 금리 동결... 트럼프 압박에도 변동 없이 유지

연준 이사들 금리인하 찬반 갈등
파월 “물가 상승에도 경제 견고”
관세정책 영향 고려해 금리 동결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기준금리를 기존과 같은 4.25~4.5%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해임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금리인하를 압박해 왔음에도 금리를 내리지 않은 것이다.

연준은 지난 29~30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4.25~4.5%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후 다섯번째 금리 동결이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금리 동결을 결정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이날 파월 의장은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물가는 2% 목표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기대인플레

이션은 여전히 잘 안착돼 있다고 강조했다.

연준이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로 보고 있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 지수는 지난 4월 2.1%를 기록했지만, 5월 2.3%로 상승했다. 다만 앞으로 1년 뒤 소비자가 예상하는 물가인 기대인플레이션은 3.2%에서 3.0%로 하락했다. 아직은 경제가 견조하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파월 의장은 관세정책의 영향을 파악하기까지는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관세정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일회성 이벤트로 단기적으로 그칠 것을 베이스 시나리오로 생각하고 있지만, 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며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가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다소 제한적인 통화정책이 적절하다”고 했다.

다만, 관세정책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금리를 동결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연준회의에 참석한 11명의 연준 이사 가운데 9명은 금리동결을 지지했지만 2명은 금리인하를 지지했기 때문이다. FOMC 이사 중 2명이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1993년 이후 처음이다.

금리동결에 반대한 미셸 보우먼과 크리스토퍼 월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이사들이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서울구치소 “尹이 완강하게 출석 거부... 건강 악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권성동 “통일교와 금전·청탁 등 부적절한 관계 맺은 적 없어” /사진 뉴시스

▲조경태·양향자, 연대 논의... “현재 룰로 혁신 후보 당선 어려워”
▲경실련 “이재명 정부 1기 인사검증 총체적 실패... 인사기준·절차 공개해야”

▲장동혁 “당 대표 된다면 적절한 시점尹 면회할 것”
▲진성준, 국힘 ‘필리버스터’ 예고에 “몽니 부리지 말고 입법 동참”